우주시대에 어울리는 '외계 생명체 문화'

06

글 | 박석재 _ 한국천문연구원장 sjpark@kasi.re.kr

앞의 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탐색을 위해 끊임없이 SETI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성패 여부에 관계없이 의외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다. 할리우드에서 '스타워즈', 'ET' 같은 훌륭한 SF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정신적,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외계 생명체를 소재로 한 SF 연속극,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외계 생명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어마을'은 난리, '외계인 마을'은 왜 없나!

우리 고유의 '외계 생명체 문화'를 형성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주시대에는 우주시대에 어울리는 외계 생명체 문화가 있어야 한다. 국민수준이 낮아 훌륭한 문화 상품을 갖지 못한 국가는 문화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외계인이 있든 없든 외계 생명체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버려지고 잊혀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CIA 요원이 외계인을 추적했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 국정원 요원이 외계인을 추적했다고 하면 코웃음쳐버린다. 외계인은 꼭 백인 어린이가 만나야지 우리 나라 어린이가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수준에 머물면 우리는 평생 불륜 드라마나 조폭 영화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 마을을 건립하느라고 지자체들이 난리라는 뉴스를 보면 왜 '외계인 마을'을 세우겠다는 지자체는 없을까 의구심이 간다. 마을 입구부터 반쯤 땅에 틀어박힌 거대한 비행접시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다른 별에 도착하는 절차를 밟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과학 공부도 시키고, 우주만화 · 우주음악 · 우주미술 · 우주연극도 소개하고, 외계인이 시중드는 식당도 열고, 외계인 가면 같은 상품도 만들어 팔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침 지자체 이름이 행성 화성과 같다는 점에 착안해 천문우주 테마파크 건립계획을 확정한 일이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 과학 테마파크 '엑스포 과학공원' 활용해야

테마파크는 현대 레저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과 계획성에서 테마파크는 보통 '유원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디즈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디즈니랜드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피노키오', '피터 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덤보' 등 수많은 디즈니 만화영화들을 테마로 만들어진 놀이공원, 즉 전형적인 테마파크다. 여기에도 물론 우리 나라 어느 놀이공원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돌아가는 컵을 타는 놀이기구가 있다. 하지만 주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트럼프들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에 와 있다는 환상에 빠져 더욱 즐거워 한다. 즉 디즈니랜드는 공원 전체가 살아 있는 디즈니 만화영화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디즈니랜드가 우리 나라 서울 근교에 자리를 잡았다고 치자. 과연 디즈니랜드와 당당히 겨루며 살아남을 우리 나라 테마파크는 몇 개나 될지 의심스럽다. 막연히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등장시키는 다람쥐나 토끼 캐릭터로 디즈니랜드의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캐릭터를 이기겠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보다 앞서, 우리 나라에 정말로 테마가 있는 놀이공원, 테마파크다운 테마파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냥 막연하게 봄이면 꽃을 주제로 축제를 열고, 가을이면 할로윈 파티를 여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국내 최초의 과학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의 예를 보자. 1993년 개최된 대전 엑스포는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뜻 깊은 행사였다. '엑스포, 그 곳엔 미래가 있다'는 구호 아래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엑스포 기간에 특히 우리 이공계 사람들은 너무도 행복했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가 이공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엑스포 과학공원은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간간이 언론에 비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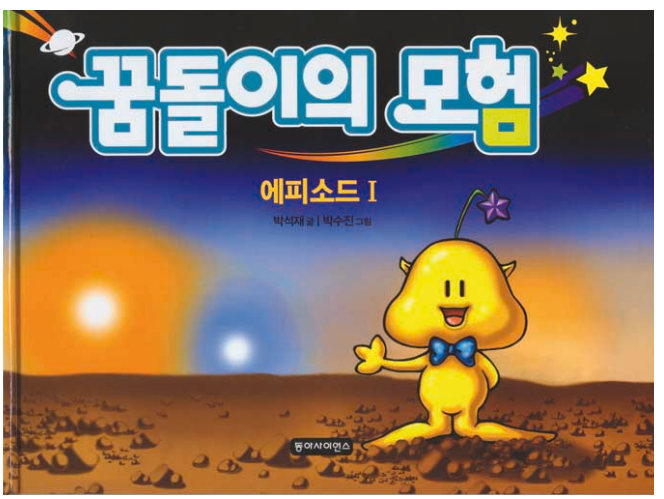
엑스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마스코트 꿈돌이를 귀여워했다. 정부도 당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꿈돌이를 만들고 홍보했다. 우리의 전통 도깨비와 외계인의 모습을 갖춘 귀여운 캐릭터였다. 국민에게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세계에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알리는 엑스포 과학공원의 상징이었다.

꿈돌이가 잊혀진 지금 우리의 꿈도 사라진 느낌이다. 꿈돌이 없는 엑스포 과학공원은 미키 마우스 없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것이다. 꿈돌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은 채 공원을 살리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엑스포라는 말을 빼거나 공원 문을 닫을 계획이 없다면 일단 꿈돌이를 되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꿈돌이가 어느 행성에서 왔으며, 나이는 몇이고, 가족관계는 어떤지 콘텐츠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천문우주 테마파크로 변신하는 '꿈돌이랜드'

필자는 최근 과학동화 '꿈돌이의 모험'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엑스포 과학공원보다 우선 꿈돌이랜드 경영자문에 응하게 되었다. 꿈돌이랜드는 엑스포 과학공원 바로 옆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기업으로 공기업인 엑스포 과학공원보다 변화를 훨씬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10년 이상 별 축제를 열어왔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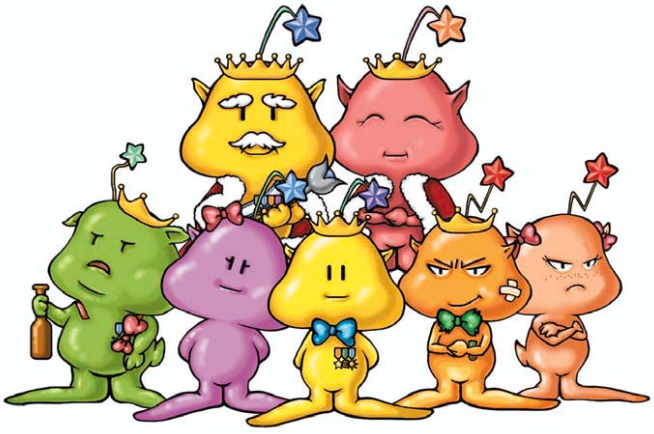
이번 기회에 아예 '천문우주 테마파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꿈돌이랜드의 장세일 사장은 현재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높이 72m, 직경 62m의 대형 회전 관람차에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설치하고 폴라리스 타워로 부르는 혁신을 단행하였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큰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자리가 마주보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은 초 · 중 · 고 과학시간에 반드시



최근 발표된 과학동화 속의 꿈돌이의 모험

폴라리스 타워를 배경으로 진행된 2007대한민국 별 축제 대전행사

꿈돌이랜드 CI



꿈돌이 가족

배워야 하는 내용이다.

필자는 '꿈돌이의 모험' 에서 꿈돌이가 파란 해와 노란 해가 뜨는 '감필라고' 라는 행성에서 온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자 꿈돌이랜드 CI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제일 먼저 꿈돌이랜드 안내 책자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도록 자문하였다.

"안녕하세요, 꿈돌이 인사드립니다.

기나긴 우주여행을 마치고 감필라고 행성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막의 행성에 있는 감필라고 왕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꿈돌이가 누구냐고요? 어른들은 몰라도 어린이들은 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는 지구 시간으로 1993년에 열린 대전 엑스포 때 지구를 다녀왔으니까요.

저는 감필라고 왕국의 황태자랍니다. 왕인 아빠와 여왕인 엄마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저, 형인 꿈술이, 동생인 꿈팔이입니다. 우리는 온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황태자로 즉위하면서 우리 왕궁의 이름도 꿈돌이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우리 왕국은 모래투성이인 감필라고 행성에서 물이 나오고 풀밭이 가장 넓은 오아시스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왕국 중앙에 있는 호수를 팔 때는 제가 일을 제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돌이 호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호수를 더 만들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얼음을 지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왕의 정원과 여왕의 정원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크고 작은 파티가 끊임없이 열렸고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광장에서는 온 은하계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 근처 여왕의 언덕에서 여름에는

감필라고 왕국

꿈돌이랜드로 다시 태어난 감필라고 왕국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들과 기념 촬영한 필자

꿈돌이랜드 입구에 세워진 '우주교통표지판'과 장세일 사장

잔디썰매를 타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제 여자 친구 꿈순이는 아주 착하고 자연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국 한 구석에서 동물과 식물을 키우는 농장을 경영하였습니다. 형 꿈술이는 너무 술을 먹어서 저한테 황태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팔며 돈은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장사하던 거리 이름이 자연스럽게 꿈술이 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술을 마셔서 여자 친구는 사귀자마자 모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동생 꿈팔이는 오락실을 경영하면서 꿈팔이 골목을 주름잡았습니다. 꿈팔이 여자 친구 꿈자는 꿈팔이보다 더 사나웠습니다. 꿈자는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다는 손님을 국자로 혼내주기도 하였답니다. 꿈자 식당이 있던 거리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꿈자 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왕국이 행복한 곳이라고 온 은하계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악명 높은 블랙홀 군단이 쳐들어 와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지구로 피신했던 제가 다시 돌아와 블랙홀 군단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블랙홀 군단은 감필라고 행성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블랙홀 군단을 물리치자 관광객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시설과 일꾼을 필요로 하게 되자 아빠는 황태자인 저에게 왕국 전체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공원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꿈돌이랜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꿈술이, 꿈돌이, 꿈순이, 꿈팔이, 꿈자 캐릭터들이 제작되고 이들이 '우주전쟁 쇼' 같은 공연을 이어가자 꿈돌이랜드는 진정한 '천문우주 테마파크'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꿈술이, 꿈돌이, 꿈순이, 꿈팔이, 꿈자 캐릭터들은 오직 꿈돌이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꿈돌이랜드는 자동추적 망원경을 보유한 천문대 건립을 계획하고 캐릭터 인형들을 판매하는 등 여러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주교통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하는 등 잔잔한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필자는 자문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꿈돌이광장

한국천문연구원은 담장을 허물어 방문객들이 바로 들어와 주차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꿈돌이랜드의 기증을 받아 지난해 9월 꿈돌이와 꿈순이 동상을 세웠다. 우리가 따로 '천돌이와 천순이'를 만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ST

글쓴이는 서울대 천문학과 졸업 후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